

짧은 황금기 긴 여명기

독일영화의 황금기

(2) 표현주의

민 병 록 (영화평론가)

독일영화의 황금기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말할 수 있다. 이 당시 세계 여러나라의 영화감독들은 영화표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영화감독들은 영화기술보다는 주제,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집중했고,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심리묘사를 시각적으로 스크린에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시각적인 묘사를 다루기 위해서 독일의 영화인들은 창조적인 특별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그들은 의상과 무대장치를 통해서 감정과 심리묘사를 시각화했고, 달소히 발기와 기록의 도구인 조명과 카메라를 그 자체로 하나의 창조적인 수단으로 다루었다.

1. 스텝의 영향

가장 대중적인 "PASSION" (1919), "ANNE BOLEYN" (1920), "DANTON" (1921) 등의 영화는 독일 역사에서 큰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표현했다. 독일영화는 극적인 궁극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정부신앙을 위해 이러한 영화제작에 투자를 했고 또 영화는 하나의 수출상품으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의 옛날 이야기나 신화에서 영화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FRITZ LANG의 "DES TINY" (1921)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어 실로 중세적인 민화의 정취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중세적인 요소들은 이 시기의 대표작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PAUL WEGENER의 "GOLDFELD" (1920), PAUL LINN의 "WAXWORKS" (1924) G.W. PAEST의 "THE TREASURE" (1924) 등에서 계속 나타났다.

2. 공식 영화

공식영화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역사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는 죽음과 환상의 영화였다. 이러한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ROBERT WINE의 "THE CABINET OF DR. CALIGARI" (1919)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아상한 의사가 독일의 조그만 도시의 한 방에서 그의 동무인 한 자와 만난다. 그 후 그 마을에 이어지고 불가사의한 일련의 사건

사건이 일어난다. 남자 주인공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죽자, 칼리가리 박사와 동무인 한 자를 세자로 의상에서 당국에 보고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주인공은 칼리가리가 종래적인 마을을 세자로 데려가서 살인하도록 하게끔 사주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래서 칼리가리는 육체화 된 악몽으로

세계영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공은 1920년대 초반의 독일의 영화의 주조를 이루던 괴기영화로 이어졌다.

3. 거리영화

스펙타클러 영화나 공상영화보다는 덜 대중적이지만 예술 그 자체에 가치 있는 영화, 즉 평범

U. EADY, G.W. PAEST 같은 영화감독들은 새로운 카메라 영동술 시도를 보였다. 카메라는 이론적으로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표현의 도구이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감독이나 카메라맨에 의해서 놓여지게 되고,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과 선택의 행위는 즉 long-shot이든 close-up의 포지션이든 또는 high angle, eye-level angle, low angle의 선택이나 이것은 감독의 주제적인 자각력과 그가 관객에게서 불러 일으키고 싶은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거리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파부스트의 "기계가 없는 거리" (1925)이다. 이



작품의 대담성과 분장의 창조성 기술발전 통한 20년대 독일영화

서 오직 살인의 쾌락을 위해 살인을 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등장한다. 마지막 장면은 칼리가리가 실수로 죽은 채로 천정에 걸린 장신병의 원형으로 밝혀진다.

이 영화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세계영화사에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영화의 내용에 있어서의 이야기의 장래의 대담성과 뛰어난 분장과 의상 그리고 세트의 창조성이다. 로버트 바네 감독은 살인이 미친 사람의 광란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양의 화인 세트를 채택했다. 또한 그림자는 검은색으로 길과 벽 그리고 하늘까지도 온통 하얗게 칠했고, 소품을 까지도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그의 친구가 살해된 것을 마을의 장면에 걸린 리프를 때 그 장면은 높이 180cm나 되는 높은 의자 위에 앉아 커다란 장부에 기일을 하는 장면에서 경찰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처음으로 영화를 단순한 대중으로 이상으로 여겼던 전후 예술가들에게 전사를 받았고, 도덕화되어 있지 않은 줄거리와 프로이데적인 가장, 무엇보다도 그 예술적인 세트는

한 인간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를 거리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거리는 영화의 묘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채로 되었다. 영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THE JOULESS STREET" (1925), "THE RAGGEDY OF THE STREET" (1927), "ASPHALT" (1929) 등 20년대 독일의 예술은 일반적으로 사실주의로 흘러갔다. 특히 사회주의를 띠 새로운 사실주의의 경향을 갖게 되었다.

거리영화는 온통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을 표현하는데 열중하였다. 현실감 가까운 영화감독에게는 가장 커다란 선전 문제였다. 현실의 왜곡과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카메라의 포용력은 예술가의 상상력과 재능을 자극할 수 있었다. 새로운 영화에 대한 사실주의 감독들은 새로운 표현의 현실성을 깨고 그 아래에 깔린 감정과 거리의 환경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반작용이나 기분까지 꿰고 들어갔다. 이러한 통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F.W. MURNAU

글 쓰는 순서

- 1) 사실주의
- 2) 표현주의
- 3) 마르크스주의
- 4) 구조주의
- 5) 수정주의
- 6) 전위영화

영화는 안료레이션이 범람하는 Vienna의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한 거리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 때의 경제적인 혼란과 붕괴된 도덕적 가치들을 반영했는데 거기에 한 가난한 교수와 그의 딸, 노동자, 투쟁자, 푸주칸 등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심리적인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파부스트는 카메라의 또 하나의 활용 관점(Viewpoint), 즉 영글에 의한 풍부한 표현성을 발굴하고 개발시켰다.

독일영화의 황금기가 끝났다면 상대적으로 그 여명기는 대

전사들 (미국, 1979)

우 있었다. 2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독일의 영화들은 한영장비 및 연기자를 그리고 감독의 기술 등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작품들이 지나치게 자의식적으로 예술적이고 멋있고 인상적이었던 내부 느리고 신중하면서 초기 몇몇몇 독일의 영화를 특징짓고 있었던 분위기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영화들이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감독, 배우, 제작자, 촬영감독, 무대장치 등이 할리우드로 자리를 옮겨서 독일의 창조적인 재능은 이미 빠져 나간 독일영화의 황금기는 저물고 말았다.

산업생 대역 영화 안내



'지성'과 '현장'의 두 토끼 잡기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너무 자유롭다.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고 강의 시간의 황금같은 공장시간들. 이제 이 주제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할까 고민스럽다.

1. 그 '심(中)'에 가고 싶다-학구파 학생의 본분은 뭐니 뭐니해도 공부다. 도서관으로 가보자. 휴전후한 편의학의 열기가 느껴지는 열람실에 앉아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상을 보고 싶으면 신문-각종 잡지가 있는 장기행렬로 가면된다. 리포트로 작성하거나 집중할 수를 원하면 개가열람실, 참고열람실이 적격이다.

2. 체험은 권력이다-운동파 강의의 또 하나의 매력은 마리를 식히고 활력을 제공하는 것도 유익하다.

3. 마스한 몸을 느끼다...-음식과 아름다운 커피로 이룬다 우리학교는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우리학교의 학생회관 앞에서는 커피, 샌드위치와 과일, 빵, 케이크, 음료수 등을 팔 수 있다. 노천극장에서 테니스를 치보자.

4. 도서관 열 봉화대 자리에선 체험단란 강의 마련되어 있으니 헬스장 대용으로

무한 자유의 출발점

활동해도 좋다. 또 호텔전문대 원원에 있는 골프장과 테니스장도 운동하기가 매우기 좋은 곳이다.

【수원】 체대열람실 뒤에 헬스장과 샤워실이 정비되어 있다. 열람 개방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오후 6시~8시이며 운동복과 운동화만 꼭 착용해야 한다. 샤워와 커피와 학생회관 앞에서는 커피, 샌드위치와 과일, 빵, 케이크, 음료수 등을 팔 수 있다.

3. 마스한 몸을 느끼다...-음식과 아름다운 커피로 이룬다 우리학교는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우리학교의 학생회관 앞에서는 커피, 샌드위치와 과일, 빵, 케이크, 음료수 등을 팔 수 있다. 노천극장에서 테니스를 치보자.

4. 도서관 열 봉화대 자리에선 체험단란 강의 마련되어 있으니 헬스장 대용으로

활동해도 좋다. 또 호텔전문대 원원에 있는 골프장과 테니스장도 운동하기가 매우기 좋은 곳이다.

【수원】 체대열람실 뒤에 헬스장과 샤워실이 정비되어 있다. 열람 개방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오후 6시~8시이며 운동복과 운동화만 꼭 착용해야 한다. 샤워와 커피와 학생회관 앞에서는 커피, 샌드위치와 과일, 빵, 케이크, 음료수 등을 팔 수 있다.

3. 마스한 몸을 느끼다...-음식과 아름다운 커피로 이룬다 우리학교는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우리학교의 학생회관 앞에서는 커피, 샌드위치와 과일, 빵, 케이크, 음료수 등을 팔 수 있다. 노천극장에서 테니스를 치보자.

4. 도서관 열 봉화대 자리에선 체험단란 강의 마련되어 있으니 헬스장 대용으로

(이유경 기자)

전시회

'한국현대미술 50년전'을 보고

'한국현대미술 50년전'이 판 북 50년대 미술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와 일간 '오늘'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최초로 전국 7개 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가 62명의 대표 작품 86점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해방직후 순수한 창작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우선했던 시기의 미술에서부터 80년대 후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시기별로 미술현상의 단면을 볼 수 있다.

50년대 중반의 자연적, 사회적 사실주의 작품으로는 이중섭의 '향초'와 김기창의 '군상'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60년대 초반의 '백과 김환기의 '무제'가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의 미술 경향은 형태와 색채를 단순화 시킴으로써 엄격하고 비개성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다.

70년대의 미니멀리즘은 이전 세대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 의해 고착되었던 가치들을 논에 떼겨 뒤집어 놓았다는 점에서 사회에서의 최초의 자극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권갑자)

90년대를 장식한 권순현의 '후설들의 신화'는 작품은 스테인드글라스의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또한 종이 위에 먹을 이용한 세세한 '군상'은 정성으로 정주에

70년대의 미니멀리즘은 이전 세대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 의해 고착되었던 가치들을 논에 떼겨 뒤집어 놓았다는 점에서 사회에서의 최초의 자극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권갑자)

90년대를 장식한 권순현의 '후설들의 신화'는 작품은 스테인드글라스의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또한 종이 위에 먹을 이용한 세세한 '군상'은 정성으로 정주에

형태와 색채의 단순미

미니멀리즘이란 회화예술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형태를 표현하는 경향이다.

70년대 이후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모더니즘 미학의 거부'라 하였다.

심문섭의 '현전 87'은 보물 미술관 소장 작품으로 화강암을 활용하고 있다. 반관적 리얼리즘으로서 민중 미술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거치면서 활발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워치한 선재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다.

이 전시회는 한국현대미술을 시기별로 전시하여 미술현상의 단면을 볼 수 있도록 조망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올해는 민족의 자존을 회복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뜻 깊은 95 '미술의 해'에는 미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한국미술의 세계화라는 지상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박은미 기자)



김기창(군상) 1957년작



이중섭, <황소> 1953년작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백수를 추구해왔습니다.

수백스(SUPER EXCELLENT 수순)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백수를 추구해왔습니다.

수백스(SUPER EXCELLENT 수순)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